車무보험·뺑소니 정부가 직접 해결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 질병,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자동차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꼬마 발레리나들의 춤사위 광주 송원초등학교 꼬마 발레리나들이 26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회 호남예술제 발레 경연에 참가해, '양치기 소녀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리산 탐방로 전면 개방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26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했던 정규탐방로를 5월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탐방로 개방에 따라 바래봉 철쭉지구와 뱀사골 계곡 등에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원관리사무소는 탐방로에서 인화물질 소지, 쓰레기 소각, 취사·흡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광산구 불법 돌출간판 '골머리'

무허가 설치 적발 올들어 1709개로 급증…인원 부족에 단속 한계

광주시 광산구 상가에 불법 돌출간판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돼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상인들이 점포를 홍보하는 간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크기, 규격 등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경우 벌과금 부과 및 강제철거, 고발 등을 하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광산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된 돌출간판은 997개였으며, 올해에는 1709개로 대폭 늘었다.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불어닥친 강풍에 떨어져 나간 20여개 간판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돌출 간판이 대폭 증가한 것은 업주의 준법 정신 결여와 무허가 광고업자들의 난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불법 돌출 간판에 대해 829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해당 상인들에게 부과했으며, 올해에는 대폭 늘어난 1억494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다수 상인들이 버티기로 일관, 징수율은 지난해에는 34%에 불과했고 올해는 3월말 현재 40%로 불법 옥외간판 설치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및 사용안내문 2만부를 제작·배포해 계도하고 있다" 며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지도 단속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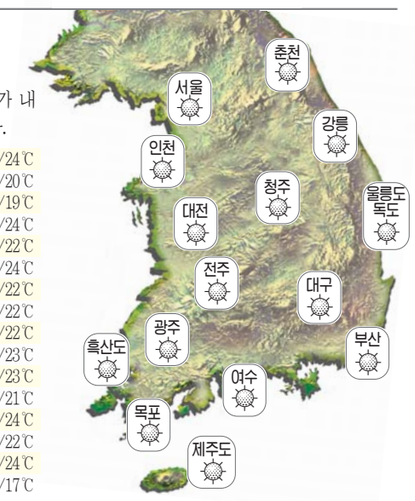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6분 해짐 19시 15분 달뜸 09시 53분 달짐 --시 --분

아침 안개 주의

아침에 내륙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겠다.

광 주	맑음	8/24℃
목 포	맑음	8/20℃
여 수	맑음	10/19℃
나 주	맑음	4/24℃
완 도	맑음	8/22℃
구 례	맑음	4/24℃
강 진	맑음	6/22℃
해 남	맑음	5/22℃
장 흥	맑음	4/22℃
순 천	맑음	8/23℃
영 광	맑음	6/23℃
진 도	맑음	6/21℃
전 주	맑음	6/24℃
군 산	맑음	6/22℃
남 원	맑음	3/24℃
흑산도	맑음	10/1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높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밀물	썰물
목포	05:34 17:32	10:52 22:51
여수	00:13 12:07	06:08 18: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토)	29(일)	30(월)	5/1(화)	2(수)	3(목)
날 씨						
최저/최고	9/26	11/25	12/26	13/25	14/24	16/22

광주시 오존 예·경보제 내달부터

광주시는 대기중의 오존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인 다음달 1일부터 9월14일까지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존 농도는 여름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께 많이 발생하며,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오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광주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언론기관 및 학교, 유관기관 등 912개소 주요기관을 통해 발령상황을 전파하게 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상황을 제공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DAEMYUNG RESORT NEWS
대명리조트 DAEMYUNG RESORT

골프, 스키, 오션월드, 리조트를 회원권 하나로!
대명리조트 특별분양 "지금이 절호의 구입기회!"
엠블호텔 여수 개관기념 특별분양!

레저업계 1위인 대명리조트가 창립 33주년 및 2012년 3월 엠블호텔 여수 개관을 기념해 오너쉽 정회원권을 특별 한정 모집중이다. 출시한 특별상품은 정상가에서 일시불 가입 시 약 10% 할인혜택 및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1/12 지분 등기제 분양이므로 법적 재산권을 보장 받으며, 다양한 회원혜택과 가입자격의 제한도 개인기명, 무기명 및 법인업체 명의로도 분양 받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 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 및 각 직영 아쿠아월드 시설의 무료 및 할인혜택이 신규 특별혜택으로 부여되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전국의 대명리조트 10곳(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을 회원자격으로 별장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발디파크는 4계절 내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스키월드, 정규골프장C.C, 오션월드, 퍼블릭 9홀 골프장 등 각종 부대시설과 2,600여실의 국내 최대규모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대명레저산업은 맞춤형 예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엄격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레저컨설턴트들로 하여금 최초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하게 1:1 담당제로 회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최고의 품격을 가지고 휴가의 한가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절이 함께하는 대명리조트에서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 친구들과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대명리조트의 특별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할 수 있다.

• 국내 최대규모 7,757실 · 전국 12개지역 직영 체인망 • 국제 수준의 사계절 리조트 [비발디파크] • 세계6대 워터파크 [오션월드] • 대명리조트 맞춤형 멤버십 출시!

대명리조트 설악 · 대명리조트 경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쏠비치 호텔&리조트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변산 · 비발디파크 오크동, 파인동, 메이플동, 체리동, 노블리안동 · 유스호스텔 ·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 비발디파크 컨트리클럽 ·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 소노펠리체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좌 : ▶우리은행 1005-900-997807 ▶신한은행 295-05-061967 | 노블리안 납입계좌 : ▶신한은행 140-008-634503 | 예금주 : (주)대명레저산업

● 법인상담환영 ● 야간 및 휴일에도 상담합니다
회원가입문의 062)380-0725
지정계좌로 입금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